

## 일반강연 2-6

### Chlorakali Electrolysis에서 한계전류밀도의 변화

황민재, 민병렬

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

#### 1. 서 론

전해질용액에 있는 이온교환막을 통해 전류가 흐를 때 막표면에는 경계층이 형성된다. 회석실 쪽 막표면에서 전해질의 농도는 감소하고 농축실쪽에서 증가하는 농도분극현상이 일어난다. 이와 같은 농도분극현상은 전류밀도에 변화를 주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막표면에 스케일을 형성할 수도 있다. ED에서는 농축실보다는 회석실쪽의 농도분극현상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이 부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. 따라서 전기 투석을 이용한 물질분리는 항상 한계전류밀도( $i_{lim}$ )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 $i_{lim}$ 은 막자체의 성능 외에도 용액의 종류 및 농도, 온도, pH, 전압등에 의해 변화한다. 따라서  $i_{lim}$ 이 각 변수에 의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임의의 환경에서  $i_{lim}$ 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.

#### 2. 본 론

$i_{lim}$ 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Current-Voltage Plotting법이 가장 용이한데 본 실험에서는 이 방법에 기초를 두었다. 실험에 사용된 막은 Selemion, Acipex의 두 가지이며 막은 양이온교환막과 음이온교환막이 각각 20장, 22장으로 구성된 연속형과 각각의 막을 한 장씩 겨는 batch형으로 두 가지이다. 시료로는 Chloralkali 용액( $KCl, LiCl, NaCl$ )이 사용되었다. 전압은 0~25V로 정전압이고 저항에 따라 전류가 변화한다.

농도 분극현상이 일어나면 전해질용액의 변화가 생긴다. 이는 물의 이온분열현상 때문이다. 즉  $H_2O$ 가  $H^+$ 와  $OH^-$ 로 해리하여 전하의 수송에 가담되는데  $H^+$ 는 음극을 향해  $OH^-$ 는 양극을 향해 이동함에 따라 용액의 pH가 변한다. 이온의 이동에는 potential gradient, concentration gradient, convection의 세 가지 구동력이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convection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.(Nernst-Plank Eq.) 하지만 ED에서 한계전류밀도 현상은 convection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

경계층내 농도분포는,

$$C = \frac{\beta i}{\alpha V} + (C_0 - \frac{\beta i}{\alpha V}) \exp[-\alpha V(\delta - X)]$$

$C' = 0$ 인 되는 한계전류밀도( $i_{lim}$ )를 구하는 식은

$$i_{lim} = \frac{\alpha V C_0}{\beta(1 - \exp \alpha V \delta)}$$

$$C_0 = \frac{\beta i}{\alpha V} \text{ 라 놓으면, } V_{crit} = \frac{\beta i}{\alpha V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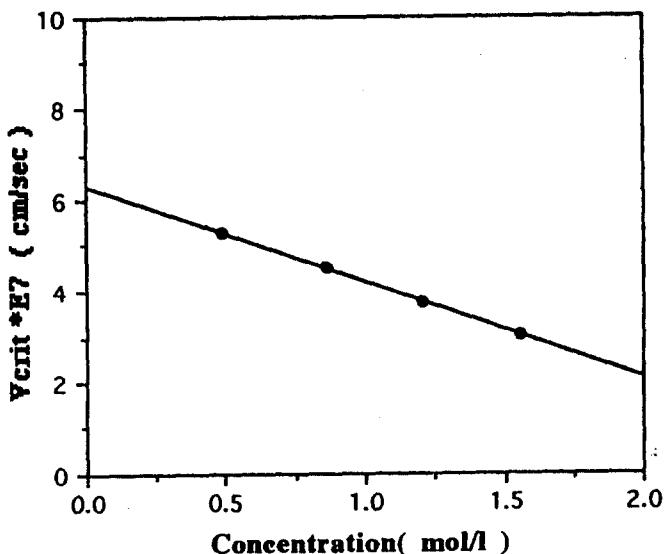
여기서  $V_{crit}$ 은 한계전류밀도에 도달할 당시의 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이온전달속도이다.

### 3. 결 론

ED공정에 적용되는 한계전류밀도의 관계식은

$$\frac{i_{\text{lim}}}{C_0} = a V^n f(pH, T)$$

으로 주어질수 있으며 이것은  $V_{\text{crit}}$  과 연관 시켜보면 농도와 선형적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. Fig.1,2는 NaCl에 대한 실험결과이다. 온도에 대한 영향을 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시스템에 적용되는  $V_{\text{crit}}$  은 증가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온의 이동속도가 온도에 따라 빨라지기때문이다. 하지만 온도상승은 막을 팽윤시키기 때문에 전기삼투현상이 두드러지게되어 이온 1개당 물전송 수도 따라서 증가하게된다. 하지만 30°C ~ 40°C사이에서 물전송수의 증가에 한계를 보여주는 데 이는 각 이온의 수화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. 열팽창계수가 낮은 재질의 이온교환막이라면 고온에서 농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. 유량을 0.6 ~ 2.2 l/min 으로 변화시키며 실험한 결과를 보면 막표면을 흐르는 유속이 변화하여도  $V_{\text{crit}}$  에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는 막과 막사이에 있는 스페이서가 적은 유속에서도 충분히 난류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 데 실제로 이 스페이서에의한 시스템전체의 압력강하는 스페이서가 없을때의 두배이상이다.



**Fig.1. Change of Verit by concentration  
( 20 C, 15V, 2.2 l/min, 30,000 ~ 90,000 ppm )**

### 참고문헌

- Yoshinobu Tanaka, "Concentration polarization in ion exchange membrane electrodialysis"  
J. Memb. Sci., 57,1991.
- N. Berezina, N. Gerasim, O. Dyomina and S. Tuimofeyev, "Water electransport in membrane system", J. Memb. Sci., 86,1994